

고품질 로즈마리 어린 순 생산을 위한 적정 삽수 길이 및 삽목 시기 구명

김명석*, 기세현, 문정섭, 염규생, 안송희, 정동춘
전북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허브산채시험장, 연구원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Intensive Production of High-Quality Rosemary Shoots

Myeong-Suk Kim*, Se-Hyun Gi, Jung-Seob Moon, Gue-Saeng Yeom,
Song-Hee Ahn and Dong-Chun Jung

Researcher, Herb & Wild Vegetables Experiment Station, Jeonbuk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 Namwon 55720, Korea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이고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자생지에 서는 식물의 크기가 2m까지 자라는 관목성 식물이다. 식용, 약용, 미용, 향료뿐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특히 향이 좋아 세계 로즈마리 추출물 시장은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이용성 확대로 신선허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허브 식물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로즈마리 역시 식물원료뿐 아니라 가공품까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2018년 로즈마리 수입량은 신선상태 978kg, 건조상태 23,404kg으로 높은 수입의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긴 유통기간에 의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로즈마리 어린 순 재배 적정 삽수 길이를 설정하고 어린 순 생산 가능 기간을 구명하여 추후에 고품질 로즈마리 어린 순 집약생산을 위한 다단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삽수 길이는 5, 10, 15cm로 하였고, 삽목 시기는 4월 하순 ~ 8월 하순까지 30일 간격으로 5회 실시하였다. 적정 삽수 길이 설정 실험에서는 15cm 삽수 발근률이 85.6%로 가장 높았으며 신초 출현시기는 5월 26일, 어린 순 생산시기는 6월 23일로 가장 빨랐고 수확시까지 소요일수는 56일로 가장 짧았다. 기대수량 또한 728g/m²로 가장 높았다. 로즈마리 어린 순 생산 가능 기간 구명 실험에서는 4월 28일 삽목시 발근율이 85.6%로 가장 높았고 육묘기간은 28일 어린 순 생산까지 소요일수는 56일로 가장 짧았다. 삽목 시기별 어린 순 품질 및 생산량은 4월 28일 삽목시 품질이 좋았으며 기대수량 또한 728g/m²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상품성 있는 어린 순 생산에 적합한 삽수 길이는 15cm, 삽목 시기는 4월 하순 경에 했을 때, 로즈마리의 생육상태, 수확까지의 기간, 어린 순 생산량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로즈마리, 어린순, 삽목, 다단재배, 허브

*(Corresponding author) cytus3538@korea.kr, Tel: +82-63-290-6302